



서울대학교 뉴욕지역

골든클럽 회보

GOLDEN CLUB NEWSLETTER

MAY 2023

WE LEAD A HEALTHY AND HAPPY LIFE

VOL. 133



골프, 정말 좋은 운동

Omg! 이게 웬일? 신나게 드라이브를 한 방 날렸는데 오비(Out of Bound)가 나는 가하면, 제대로 잘 나가는 가 싶더니 슬라이스(중간에 휘어짐)가 난다든지 하는 순간을 맞보지 않은 골퍼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놓고 싶지 않은 게 골프가 아닐까. 시원하게 앞이 탁 트인 필드에서 조막만한 공을 치면 저 멀리 뻗어나가는 기분, 공이 도로로 구르다가 홀컵으로 쏙 빨려 들어가는 쾌감, 이런 느낌 때문에 바로 골프를 치는 것이 아니겠는가. 잘 하든 못 하든 골퍼들은 이 기분을 맞보기 위해 줄기차게 골프장을 찾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골프가 어디 생각대로, 마음먹은 대로 되는 운동인가. 어제 잘 되서 오늘도 잘 되겠지 하지만 천만에... 오늘은 어제보다 더 못한 성적이 나오고, 오늘 안 되던 실력이 내일 가면 생각보다 잘 나가고 하면서 죽어라고 약을 오르게 만드는 게 골프다. 그래서 마음대로 안되는 게 '자식'이고 '골프'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이번 대회에서도 고 놈의 작은 공 하나가 흠마다 나를 많이 속상하

게 하고 애를 태우게 하지 않았을까. 분명히 골프채를 잘 휘둘렀다 싶은데도 공이 숲으로, 흠 밖 아니면 샌드로 들어가고 퍼팅은 몇 타씩 먹고 도무지 마음대로 되질 않는다. 그때마다 골프채를 던지고 그만 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하지 않았을까. 그래도 또 다음 홀에서는 더 잘 해야지 하면서 기대감을 갖고 또 갖고 하면서 18홀을 채우고 아쉬움을 안고 끝내는 게 골프인 것 같다.

4월은 잔인한 달이라지만 실제로는 어느 때보다도 싱그럽고 아름다운 달이다. 자연은 새 생명이 약동하면서 곳곳이 파릇파릇한 잔디와 노랑과 파란 잎사귀들이 점점 얼굴을 내밀며 커지는 신비의 계절이다. 이 좋은 때에 우리가 한껏 즐거움을 누리며 골프를 친다는 건 축복 중의 축복이 아닐 수 없다. 골프채를 마음껏 휘둘러 때마다 산소와 엔돌핀이 샘솟듯 분출되고 도심에서 쌓인 스트레스가 절로 해소되고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카타르시스를 맞보게 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골프를 마친 후 맛있는 음식에다 더위와 갈증을 식히는 한 잔의 짜릿한 음료, 거기에 오가는 파스하고 **[2면에서 계속]**

GOLDEN CLUB NEWSLETTER

발행: 서울대 뉴욕지역 골든클럽 • 회장: 홍종만 • 부회장 윤현남 • 사무총장: 김정필 • 상임고문: 정해민
편집위원: 윤현남(편집장), 금영천, 김병순, 김정필, 오순문, 정해민, 허유선, 홍종만 여주영
261A 4th St., Palisades Park, NJ 07650 • hong1945@gmail.com • 646-342-2667

서울대학교 뉴욕지역 동창회 장학금 모집을 위한
2023년 춘계골프대회 개최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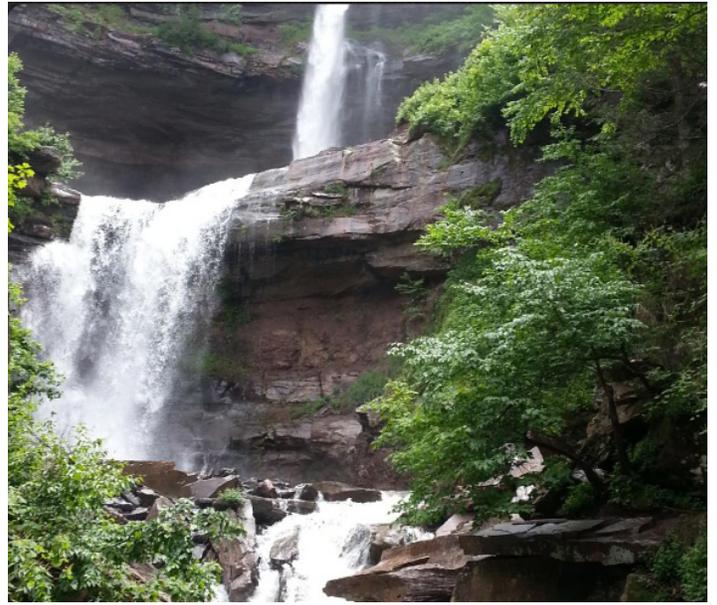
서울대학교 뉴욕지역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위가 시작되는 여름으로 들어서는 절기를 지나 식물의 푸르름이 조금씩 대지를 덮는 좋은 시기에 동창회에서는 2023년 춘계골프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전통에 따라 장학금 모금을 목적으로 개최합니다. 많은 동문 님들의 참가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대회 개요입니다.

날짜: 2023년 5월 18일 (목)
시간: 오후 12시 30분 Shotgun (11시 30분까지 도착 바랍니다.)
장소: Split Rock Golf Course
주소: 870 Shore Rd, Bronx, NY 10464
참가비: \$120 (Check pay to order of: SNUAANY)
연락처: 김정필 (201)965-7759 email: jaypkim@keiusa.com
장학금 후원:
 골프대회에 참가하지 못하시는 동문께서 장학금을 후원하시려는 경우, check 는 Payable to SNUAANY 으로 하면 됩니다.

Check 보내실 곳(Mailing Address):
 SNUAANY(서울대학교 뉴욕지역 동창회):
 Young Chun Kum,
 53 Fraser St.,
 Staten Island, NY 10314

장학생 선발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은 추후 알려드립니다.

Kaaterskill Fall 산책



5월에는 15인승 Van을 빌려서 NY의 명소 카아터스킬 폭포를 방문합니다. GWB에서 약 2시간 소요되는 가까운 곳에 있으며 가벼운 산책과 사진찍기에 아주 좋은 명소입니다. 주차장에서 폭포까지 왕복 1.4 마일 완만하고 잘 관리된 길이므로 풍경을 즐기면서 편안하게 다녀올 수 있으니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날짜: 2023년 5월 25일 (목)
시간: 오전 9시 PIP exit 4-5사이 파킹장
회비: \$20
등록: 김정필 (201)965-7759 jaypkim@keiusa.com

상임이사 및 임원 연석회의 보고

제43대 뉴욕동창회 상임이사회 및 임원 연석회를 2023년 4월 6일, 저녁 8시에 Zoom Meeting(화상회의)로 개최하였다. 주요 의론 사항은 아래와 같다.

참석자: 정해민, 성기로, 배상규, 오순문, 신응남, 금영천, 연영재, 김병순 (이상 8명, 이하 존칭 생략)
 박기환, 송웅길, 임창우, 허유선 (위임 4명)

회의 내용:

1. 동창회의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 현재 공식인 제1부회장(차기회장)으로 연영재(공대74, 공대회장) 동문을 참석자 절대 다수의 거수로 추천 결정
2. 미주총동창회 평의원회의 6월 9일 - 6월 10일
3. 평의원회 포상 동문 추천: 4월 20일까지 추천서 접수 요망

[1면에서 계속]정스러운 대화는 골프에 버금가는 또 하나의 즐거움이 아닐 수 없다.

긴 겨울을 지나고 가진 올해 첫 골프대회는 내게 큰 교훈을 주었다. 욕심은 금물이고 과함은 부족함만 못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루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비록 기대와는 어렵없는 성적이지만 성적이 전부인가! 회원들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했다면 이 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는가. 최고의 하루였고 최상의 복을 누린 기분이다. 다음 대회는 또 어떤 곳에서 누구와 또 색다른 교감을 가질 것인가 벌써부터 기대가 솟구친다.

이번 골프대회에서 얻은 싱그럽고 따스한 봄기운이 연중 내내 우리들의 삶의 활력소가 되고, 우리 각자 각자의 희망이 모두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삶에 활력을 주고 할수록 깊이를 더해주는 골프, 정말 좋은 운동인 것 같다.

여주영 (명예회원)

고 양인회 회원을 추모하면서

■ 우규환 (사대61)

뉴저지 컴퓨터 클래스 old timer들이 참으로 오래간만에 한자리에 모여 심중에 있는 회포를 풀게 되었다. 컴퓨터 전도사 양인회 동문의 서거 1주년이 되는 4월 18일 오후 1시, 뉴저지 동보성 중화식당은 교실에서 맛볼 수 없는 삶의 훈훈한 이야기들이 계속되었다. 뉴저지연합교회, 버겐장로교회로 교실을 옮겨 다니며 공부하다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1년쯤 쉬고 다시 줌으로 영상강의를 계속했는데 암투병을 하면서도 fulltime computer mission을 내려놓지 않았던 양인회 동문의 열심을 누가 감히 흉내라도 낼 수 있을까? 덕분에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고 익혔다. Microsoft Office(Word, Excel, PowerPoint)는 기본이고 Adobe app(Photoshop, Premiere, Publisher, Illustrator)의 고급기능까지 섭렵하며 YouTube video를 만들어 자녀손들과 친구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준 기억이 있다.



양인회 동문은 농대를 나와서 어떻게 컴퓨터를 잘 하느냐? 라는 질문에 그의 이력을 소상히 털어놓은 글을 카페 칼럼에 올린 적이 있다. 나는 그 글을 읽고 이렇게 댓글을 달았다. "...졸업 57주년이 지나 뉴욕컴퓨터 교실의 양박을 스승으로 모시니 참으로 변화무쌍한 인생여정 이네요. 군사부 유교정신에 투철한 한 사람으로 양박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별명이 양박이라 불릴 만큼 그는 컴퓨터에 도사가 되어서 오랜 세월동안 골든클럽 컴퓨터연구원을 지도하였다. 특유의 교수법으로 가르칠 뿐 아니라 학생들의 질문에 일일이 응답하고 개인컴퓨터를 보수 정비하는 일까지 도맡아 하였다. 창립 8주년 기념 "추억의 앨범"을 만들어 70명이 넘는 회원에게 모두 선물하였다. 77페이지의 앨범 중 5면(양인회)의 마지막 부분: "...컴퓨터 전도사 역할을 충실히 하라는 사명을 띠고 이 지구에 태어났다는 것이 저의 마음에 늘 자리잡고 있어 생명이 붙어있을 때까지는 전도사 역할을 충실히 하려합니다. 저보다 한발 뒤쳐져 계신분들을 위해 저 녀노을을 붉게 물들여 보겠습니다. 아주 붉게요. 이것이 아무진 꿈이 아니라 현실이길 바랍니다."

그는 메마르기 쉬운 컴퓨터를 가르치면서도 시와 노래를 엮어서 풍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었다. 노천명, 김연아, 김태희가 자주 언급되었고 OMG악단의 섹스폰 연주를 좋아하였다 "잊으라 했는데 잊어 달라 했는데 /그런데도 아직 난 너를 잊지 못하네. /어떻게 잊을까 어찌 하면 좋을까. /세월가도 아직 난 너를 못 잊어 하네. /아직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나 봐. /아마 나는 너를 잊을 수가 없나 봐. /영원히 영원히 네가 사는 날까지 /아니 내가 죽어도 영영 못 잊을 거야" 국민가수 나훈아의 '영영' 노래 가사이다. 이전구 회원이 양인회 강사의 반주음악에 맞추어 컴퓨터교실에서 녹음한 자료를 찾아 올린 것이다. 여기에 양인회 강사의 얼굴을 볼 수 있으니 꼭 한 번 들어보시기 바란다. (뉴욕에서 만나요 카페의 이전구 녹음실 참조) 이 노래를 양박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올려드립니다.

2023년 4월 박수안 내외, 배옥희 내외, 손갑수,신진식 내외, 안미상, 우규환, 원재훈,이용대, 이종대, 임호순, 정예, 정해민,최금림, 홍종만 내외 (오늘의 추모 모임을 계획하고 모든 비용을 지불하신 정해민 선배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홍종만 회장 부부는 3월 26일 하와이 여행중 이강홍 선배님 가족과 만나 즐거운 해후를 가졌습니다.



4월 12일 한국이주 6년만에 미국을 방문한 손영철 전회원 부부를 환영하는 모임이 광선섭 회원택에서 모였습니다.



2023년 신년교례회 소감

■ 오순문 (사대68)

사월이 시작 되는 첫날, Tenafly 한인봉사센터에서는 우리들의 신년교례회가 있었습니다. 회원과 가족 82명이 모여 총회를 겸한 임원 선출과 소개, 회계보고, 년중 행사 안내, 등이 있었고, 뒤이어 민준기 동문과 윤선구 동문의 장기자랑, 신주원 musical가수와 황진호 테너가 출연하는 작은 음악회와 손대흥 회원의 퀴즈 알아맞추기의 순서로 여흥이 이어졌습니다.

긴 겨울이 지난후, 기다리던 첫모임이라서 그런지 오랜 벗들을 만나는 반가움과 새소식들로 시종 화기에애한 분위기였고, 만찬중에 장내에 은은히 울려 퍼지던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란 노래는 우리들의 모임을 잘 표현해 주는듯 싶었습니다.

우리들의 만남은, 어쩌면 인간사 모든 만남이 그러하듯이, 결코 우연만은 아닐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살아오면서 인생길 구비구비마다 훌륭히 나타나 나를 도와줬던 분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걸 나이가 들어가면서야 겨우 깨닫게 되지요. 사람이 산다는건 만남과 헤어짐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마치 방직기에서 철거덕철거덕 실타래로 양탄자를 짜나가듯 가로세로로 엮어나가는 것일텐데, 걸보기엔 무작위로 실타래를 가져다가 계획없이 짜다보면 우연히 양탄자가 된 것같이 보이기도 하겠지만, 거꾸로 아름다운 무늬가 잘 새겨진 양탄자를 가만히 들여다 보면 결코 아무런 계획없이 아무런 색깔의 실들을 가져다가 섞어 짜기만 하면 양탄자가 되는게 아니란걸 알수가 있지요.

서로 다른 색깔의 사람들이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면서 이뤄진 것이 인생이요 인간의 역사라면, 아름다운 모양으로 카펫위에 자국으로 새겨져 있는 내 인생에 고맙고 그리운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우연일 수가 없는거겠죠. 양탄자 위에 그려진 붉은 장미를 보면 붉은색 실은 붉은색 실대로, 꽃가지의 초록색 실은 초록색 실대로 반드시 그곳, 정해진 그 자리에 있어야만 되는 운명이었다는 생각이 들게 되지요.

나이가 드니까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도 생기고, 모든 만남이 소중한다는 것도 깨우치게 됩니다. 어느 모임이나 뒤에서 수고해주시고 버텨주시는 분들이 있기에 모두가 함께 하는 좋은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것일텐데, 골든클럽 14년 운영 know-how를 가지고 계신 홍종만회장님 부부를 비롯한 김정필 사무총장님 부부, 인기 생선회를 공급하시고 다들어 주신 정해민 고문님과 손대흥 회장님, 윤현남 편집장님, 금영천회장님, 허유선 위원님, 김병순 위원님. 모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수고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우리들의 모임에서 가장 큰 기둥은 불편한데도 먼거리에서 늘 참석해주시는 회원님들이셨습니다. 자주 못보는 동문들과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고 교류하다보면 회원들 사이에 우의가 더욱 돈독해 지기 때문이겠지요. 봄의 문턱에서 더 멋있고, 더 힘찬 2023년을 다짐하는 즐거운 모임이었습니다.

Harriman Mountain Hiking

■ 오용호 (의대66)

나 자신 골든클럽 주관 산행길은 처음이고 퇴행성 무릎관절염 때문에 좋아하던 산행을 포기한지가 5년여 되어 주저하다가 용기를 내어 이번 산행길을 따라가기로 했다. 이 날은 날씨가 좋아서 기대되었고 9시에 PIP 만남 장소에서 7명이 세대의 차로 나뉘어 trailhead 인 Anthony Recreation Park의 파킹장에서 한 분이 더 합류하였다. 일행은 멀리 부산에서 온 손영철 내외분, Long Island에서 온 천병수 사장, 남쪽 뉴저지에서 온 이경태님, Cold Springs에서 온 박상원님 그리고 홍종만 회장님 내외하여 모두 8명이었다. 이 중 홍종만, 이경태, 그리고 손영철(앞으로 존칭 생략)은 공대 산악반 멤버로 같이 산행을 오래한 베테랑들이라 산행을 쉬이 하지만 일년 전에 바로 이산에서 발목부상을 당해 겨우 회복해가는 천병수 산행 경험이 별로 없어 보이는 박상원 그리고 무릎 조심하는 나는 그렇게 쉽게 덤벼들 계제가 아닌 것 같았다. 두 여성분은 오히려 경험도 많고 체력도 좋아 보였다.



넉넉히 가지고 온 분이 있어 모두 포만감있게 점심을 먹었다. 이 곳 대피처는 명당에 자리잡아 멀리 아래로 허드슨 강이 돌아가는 것이 보이고 펼쳐있는 들판과 산들의 어울림이 여간 멋들어진 게 아니다. 식후 절경을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배낭도 챙겨서 오후 산행을 1시경에 시작하였다.

9:30분부터 8명의 산악인들은 서서히 안내자인 Mrs.홍을 선두로 오르막길을 오르기 시작했는데 한 30분 지나니 앞 그룹과 뒤 그룹이 확연히 구분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선선한 바람기로 쾌적한 기온 상태가 시간이 가면서 대기의 온도가 오르기 시작하고 운동으로 몸이 달구어지면서 반소매 차림으로도 땀을 뺀기 시작하였다. 산행길은 가팔라지면서 두발 두손 모두 땅을 짚어야 하는 구간이 자주 나타나더니 경험자들과 비경험자들의 차이가 자주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중간 나타나는 멀리 조망할 수 있는 멋진 view point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 잠시 쉬면서 시원한 봄(아니 여름)바람을 맞으며 냉수로 목도 축이고 멀리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넓디넓은 Harriman Park와 Bear Mountain의 봄기운 오른 들판과 산자락을 내려다보는 것은 올라오는 수고와 땀기운을 씻기에 더 나위 없는 신선한 청량제가 되었다.

이렇게 힘과 걷기를 두어 시간하여 trail 정상의 shelter에 도착하니 이미 한국 남자 두 분이 와서 pop song을 틀어놓고 정답게 라면을 끓여 잡고 있었다. 홍대장이 그 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우리도 주섬 주섬 둘러앉아 각자 준비해온 점심거리를 배낭에서 꺼냈다. 홍대장은 프로답게 배낭에서 두개의 성능 좋은 burner와 큰 냄비를 꺼내고 Mrs. 홍은 라면과 어묵 썰어온 것을 꺼내어 우리 모두에게 어묵라면을 대접할 준비를 하였다.

여기저기서 물을 꺼내어 푸짐한 어묵라면 제조에 조달되었다. 불이 좋아서 라면은 순식간에 준비되어 모두에게 알맞게 돌아갔다. 별거 아닌 라면이지만 산에서 여럿이 둘러앉아 먹는 맛은 정말 천하 별미였다. 떡 가지고 온 분, 군고구마 가지고 온 분 그리고 오렌지를

이때는 기온이 이미 90도를 넘기 시작하여 땀들을 많이 흘리기 시작하는데 아뽤싸, 가지고 온 물들이 간당간당 해졌다. 모두 이렇게 까지 더워질 줄 모르고 충분한 물 준비가 안 한 것이 불찰이라면 불찰이다. 산길은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면서 그칠줄 모르게 이어졌고 앞그룹과 뒷그룹 사이가 벌어지면서 이경태님은 쉬임 없이 내달아 한 번도 전체 그룹과는 재회를 못하고 하산하고 말았다 (늦어지면 돌아갈 길이 막힐 것을 우려하여 서두른 것 같았다). 여하간 일행은 여러 차례 상봉과 헤어지기를 거듭한 후 물은 다 떨어져 갈증과 피로에 지쳐가지고 5시가 다되어 파킹장으로 사고없이 돌아왔다.

홍대장의 제안으로 Tappan에 있는 탐관빚집에 가서 그집 별미인 추어탕을 먹자고 하여 집이 반대 방향인 박상원님을 제외하고 남은 6명이 뒷풀이를 가졌다. 모두가 지치고 목이 말라서 시원한 사뽀로 맥주와 막걸리로 목을 식히는 그 맛은 천상 별미였다. 푸짐한 회점시와 시끼다시로 나오는 맛있고 정갈한 여러 점식들로 우선 배를 채우고 추어탕을 나누어 먹으니 세상 부러울 게 없었다. 산행도 즐거웠지만 산행후의 뒷풀이가 있어야 화룡점정이 아니겠는가?

산행을 계획하고 추진하면서 모든 참가자들의 안녕을 보살피고 따끈한 오뎅라면을 제공하고 마지막 뒷풀이까지 쏘신 홍대장 내외분께 감사하고 오랜만에 친정에 와서 같이 어울려 주신 손영철님 내외분 그리고 새로 만나보게 된 박상원님과 이경태님 또 시원치 않은 몸 이끌고 온 천사장님 모두에게 함께 좋은 시간 만들어주어 감사한다.

이준행 회장 94세 생신연에 골든클럽 회원에게 주신 말씀

■ 정리 윤현남 편집국장

지난 3월20일은 이준행 명예회장님의 94세 생신이었습니다. 20여 명의 골든클럽 회원과 가족들이 이 회장님 자택에 모여 축하연을 가졌습니다. 이 회장님께서서는 작년 말부터 건강이 여의치 않으셔서 오랜 기간 입원 치료를 받으시고 퇴원하신 지 두 달 미만밖에 안 돼 거동이 마음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맞으신 생신이었습니다. 그래도 골든클럽에 대한 지극한 애정으로 꼭 저희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을 피곤을 이겨가며 해주셨습니다. 이 글은 이 회장님의 말씀을 가능한 한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 회장님의 골든클럽과 회원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느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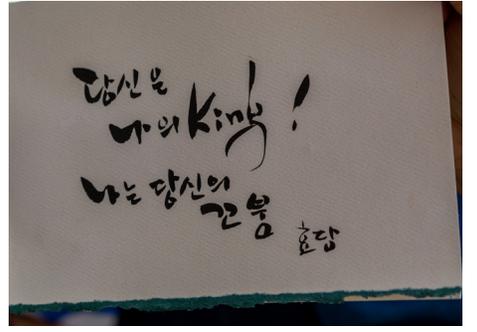
뇌가 돌질 않아. 혼자서는 나는 서서 걷지도 못해. 하지만 살아 나온 것만 해도 감사하고 여러분의 덕으로 생각합니다. 병원에서 나온 지 두달 좀 넘었는데 그동안에 살려고 애를 썼죠. 눈 수술 받고, 귀 듣게 하는 노력을 했고, 걷지도 못하면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병원에 성기로 회장이 안내해주고 애를 많이 써서 고맙기 짝이 없습니다.

부탁 말씀

내가 여러분께 진심으로 부탁할 게 하나 있어요. 부인을 열심히 일삼아서 살아보세요. 그걸 못하면 죽은 다음에 후회합니다.

나는 우리 집사람이 4년전 내 90세 생일 때 생일카드를 직접 만들어서 준 게 있어요. 몸소 글을 써 이 카드를 만들어서 나한테 준 거야.

“당신은 나의 왕이고 나는 당신의 부하야.” 예전에는 오야붕과 꼬붕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아예 근처도 못 온다고요. 그런 사람이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떠나버린 거야. 지금 와서 애기하고 가라 할 수도 없고,



지금 부인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행복한 거고 그걸 잠시도 잊지 말고 살아요. 더 하나 부탁은 항상 부인 손을 꼭 붙들고 다니라는 거예요. 전에 집사람보고 붙들자 하면 “아유 창피해서 어떻게 해?” 해서 “창피하게 살자.” 그리고 나서 붙들고 다니고 했던 것이 큰 즐거운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남이 욕하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있어요. 어떤 행사이고 또 어디이고 신경을 쓰지 말고, 아끼지 말고 잡고 다니세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또 부탁드릴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 모임을 가진 이유는 내가 94년을 살았어요. 얼마 남지도 않은데 사람이 어떻게 잘못하지 않고 살 수 있었겠어요. 잘못해도 잘못된 것이라고 끝내고, 잘해도 잘한 것으로 끝내고, 서로 용서하고 또 이해해서 서로 정답게 생을 마치자는 부탁을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잘못하고, 건방 떨고,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겠지만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께 잘못된 점이 있으면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안할 거고 그래도 또 실수하면 이런 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한마디 해주시면 즉시 바로잡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바랍니다.

골든클럽 회보

정해민 선배: 뉴스레터가 크기는 한 8 페이지밖에 안 되지만 그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주 깔끔하고...

이준행 회장: 지금은 서울도 그렇고 미국도 그래요. 서울대학교 동창회는 뉴스레터 하나로 운영되는 것이예요. 1년에 동창회에 얼마



정해민 고문 축사

오늘은 선배님의 94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특별한 날입니다. 선배님께서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후학들을 위해서 장학재단을 설립하시고 모교 뿐 아니라 우리 뉴욕사회에 젊은 청년들을 위해 장학금을 오랫동안 지급해 오셨습니다. 이제는 힘들게 해 오신 일들을 내려놓고 쉬실 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선배님은 놀라운 활력과 에너지를 보면 아직도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저희 후배들은 항상 선배님의 모습에서 많은 것을 배우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선배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이십니다. 이제는 많은 것을 이루셨고, 삶의 여정도 어느 정도 오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후배들은 항상 선배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따라 나가며 선배님께서 보여주시는 모범을 따르겠습니다. 선배님, 이 회장님 생신 축하합니다.

감사 말씀

아! 고맙습니다. 내가 여러분 이런 자리에 와 주신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말도 없을 뿐더러 하면 내가 통곡을 할 것 같아. 그래서 긴 말은 않기로 하고 이것으로 여러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다만,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포도주가 몇 병 있는데 여기서 안 따면 딸 곳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고, 나를 도와주는 좋은 분들한테만 대접하는데 오늘 이 자리가 딱 적합해서 여러분에게 한 잔씩 돌립니다. 내가 병원을 6개월 들어갔다 왔더니 잃어버린 게 한두가지가 아니예요. 눈 못 보는 것, 이름 잊어버리고 듣지 못하는 것...

나 들어오느냐면 사십억 원이 되요. 그러면 뉴스레터 하나로 운영하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서 뉴욕의 골든클럽도 골든클럽 뉴스레터 하나로 지금만큼 움직이는 거예요. 소식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더 큰 포부를 가지고 뉴스레터의 역할을 키워나가야 해요. 필요하다면 외부의 전문가를 편집팀에 영입해서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어필할 수 있는 뉴스레터를 만들어야 해요.

윤현남: 말씀 새겨들었습니다. 골든클럽 회보 아니 조금 더 큰 차원에서 골든클럽에 약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서울 대학교 출신이라는 frame을 지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회원들을 위한 행사를 회원들만의 힘으로 실행한다는 frame입니다. 어떻게 보면 골든클럽은 약간은 내부 지향적인 조직인 셈입니다. 바깥에서 idea도, 도움도 받고 또 바깥에 적극 도움을 주는 외향적인 성격을 추가해야 더 큰 안목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회장님의 말씀은 저희가 너무 소극적이고 내향적이었기 때문에 골든클럽의 potential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편달로 감사히 받아들이고 노력하겠습니다.

골든클럽의 발전에 관하여

이준행 회장: 아시는 대로 내가 종종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골든클럽 발전기금이라고 만 불씩 몇 차례 주었어요. 그것을 한 번도 제대로 쓰는 것을 나는 느끼지 못했어요. 최소한 골든클럽 회보에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내가 느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는 현역들이 문제예요. 현역이 마음을 바꿔야 해요. 골든클럽 회보의 기사가 조금은 나아졌어. 그래도 아직 멀었어. 기사 하나만 가지고도 골든클럽 전체가 운영되도록 각오를 해야 해요. 골든클럽 발전 기금은 있어? (홍종만: 두 번 주셔서 2만 불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발전 기금을 준 이유는 그때 바로 잘 써야지. 유용하게 쓴 흔적이 하나도 없단 말이야. 예로 소아 협회에 한 번 만 불 줬는데 좋아서 허겁지겁 뭐 사서 금방 쓰는데 골든클럽은 그걸 그냥 잘 지키고 있어. 골든클럽 운영하는 데에도 이런 자세가 좌우명이 되어 된다고. 지금처럼 운영하는 거는 모든 것이 너무 안이해요. 발전기금 받았다는 말도 못 들었어.

앞으로의 운영이라는 것은 회보 하나가 단체 전체를 lead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에요. 골든클럽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어요. 그렇지만 뉴욕의 골든클럽은 어떠한 클럽이고, 여기 가입하는 것은 영광이고 서울 뿐 아니라 어디를 가도 대접받는 그런 훌륭한 클럽이라는 것을 계속 홍보해야 해요. 지금은 약간 시시해졌어. 시시해지면 안 돼요. 끊임없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해요. 그거를 lead하는 것이 골든클럽 회보예요. 발전기금을 그런데 사용해야 해요. 이번에 아무게 아무개가 신입회원으로 들어와 이런 선물을 하나씩 돌렸다는 말들이 돌아야 해요. 나에게도 발전기금을 이렇게 사용했다는 얘기가 들리지도 않고 그러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도 없어요. 지나가면 그만이야.

골든클럽에서 일하고 안 하는 사람은 바로 회장이야. 참신하고 의미있는 일을 만들고 그것을 회원들에게 알려야 해요. 편집팀도 마찬가지 문제예요. 나는 이 사람들이 이런 데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믿어요. 발전기금 하나도 안 쓰고 가만히 있어도 돌아가는데 누가 미쳤다고 발전기금 얘기에 호응하겠어요. 골든클럽은 이런 점 몇 점만 시정을 해도 확확 달라집니다. 그냥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한테 너 회장 해라 해도 되는 거야. 아무 자격도 없는 그런 회장이 하는 거랑 똑같다고. 그래서 새로운 회장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지금 골든클럽 시스템은 너무나 잘 돼 있다고요. 그런데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홍종만: 2년 전에 제가 자유롭게 발전기금 및 다른 골든클럽 발전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시기가 적당치 않아 실행 못 했습니다. 말씀해 주셨으니 올해 봄부터 두세 달에 한 번씩 매번 8-10분이 모여 골든클럽의 미래를 의논하는 모임을 진행하겠습니다. 건강이 허락하시는 대로 꼭 참석해 주십시오. 좋은 아이디어를 꾸준히 발굴하고 발전기금을 귀중한 seed money로 사용하겠습니다.)



자주 만나는 것이 답이다.

내가 바라는 것은 매달 한 번이라도 저녁식사 살 돈 없으면 칼국수라도 같이 먹으며 얼굴 맞대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발전기금을 조금이라도 내줄 사람이 있으려면 그런 식으로 해서 자주 만나는 것 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싫은 소리, 좋은 소리를 꾸준히 들을 기회가 있으면 발전하지 말라고 해도 엄청 나아질 거예요. 이런 것이 더 발전하면 서울대학교 동창회 회장, 동창회 편집국장 등을 초청하면 거절할 이유가 없어요. 와서 한마디씩 하고 나면 뭔가 도움을 주지 절대 해는 끼치지 않아요. 우리에게 돈 달라고 안 해요. 우리가 자주 만나 미래지향적 아이디어들을 많이 만들면 처음에는 위축되는 사람이 있어도 여럿이 같이하자면 흥내라도 내게 된다고요. 그러니 다음 주에라도 몇몇 사람이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하자고요. 좋은 일은 벌여놓고 보아야 해요.

임호순 선배 끝냄 인사

이 회장님 건강하시고 여전히 진취적으로 사시는 모습 보니까 정말 기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저희 골든클럽은 이 회장님을 모시게 된 것이 정말 다행한 일입니다. 처음 2010년에 골든클럽 회장으로 취임하시고 골든클럽을 크게 점프시키셨습니다. 새로운 골든클럽을 만들고 이끌어 나가 주셨습니다. 정말 과거 유형을 따르지 않고 시고 앞을 보고 사는 클럽을 만드셨어요. 오늘 94세에도 여전히 그런 기백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끊임없이 골든클럽을 마음속에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온종일 아니 거의 한평생을 골든클럽에 바치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세요.

회원 명단 (114명 / 2023-4-25)

강교숙	김병순	박희병	유무영	임도혁	최철용 최학주 추재욱 한영수 한용오 한태진/ 안용희 안용웅 허유선 홍정표 홍지복 홍종만/ 홍예경
강에드	김상만	배상규	윤선구	임창우	
강영선	김승호	성기호	윤종숙	임호순	
계동휘	김영덕	손갑수	윤현남	정노현	
고애자	김영만	손경택	이강홍	정수일	
곽상준	김우영	손대홍/ 남종현	이민제	조달훈/ 조승자	
곽선섭	김익성	손옥화	이상무	정해민/ 조승자	
곽승용	김인형	송근숙	이준	정해민/ 조상근	
구달희	김정필	송현자	이대연	주상선	
김봉웅	김종울	송학린	이영범	주재양	
권정덕/ 홍선경	김창수	송혜순	이용대	진봉일	
권영대	김치갑	신진식	이전구	천병수/ 천종화	
권태전	김태일	신응남	이종대	최구진	
금영천	김현중	오순문	이종석	최병우	
김정덕	노용면	오용호	이준희	최수용	
김광현	민준기	오유섭	이태호	최순채	
김동건	박기환	오인석	이행순	최준희	
김문경	박상원	우규환	이홍빈	최진영	
김문언	박준구				

2023년 연회비 납부 명단 (64명 / \$6400/ 2023-4-25)

강에드	김치갑	송용길	이행순	최철용
강영선	홍선경	송현자	이행빈	한영수
곽선섭	권문웅	송근숙	임도혁	한용오
곽승용	금영천	신두식	임호순	한태진
권영대	김상만	신진식	정수일	한용희
권정덕	김종울	오순문	정해민	홍정표
권태전	박기환	오용호	주상선	홍종만
계동휘	박상원	윤선구	조달훈	홍예경
김광현	박희병	이대연	조승자	
김동건	배상규	이상무	천병수	
김문경	성기호	이영범	천종화	
김익성	손경택	이전구	최병우	
김정필	손갑수	이종대	최수용	
김창수	손옥화	이종석	최준희	

2023년 후원금 기부 명단 (23명 / \$10,280/2023-4-25)

강에드 200	성기호 500	이전구 1000	한태진 500
권정덕 300	손경택 1500	이행순 200	홍종만 1000
금영천 300	신두식 200	임호순 300	
김광현 200	신진식 300	정해민 1000	
김문경 200	오순문 200	최수용 1000	
김종울 200	오용호 300	최준희 400	
김치갑 80	윤선구 200	최철용 200	

2023년 입회비 납부 명단

신두식 200 이영범 200 박상원 200

발전기금 기부명단 (1명 / \$20,000 /2023-3-25)

이준행 20,000

골든클럽 회비 납부 양식

성명: (한글)

(영문)

생년월일:

입회비 \$200

단과대:

학과:

입학년도:

졸업년도:

연회비 \$100

전화번호:

Email:

후원금 (\$)

주소 (Home):

골든클럽 2023년 행사 일람 (2023-3-25)

1월	22~28일	플로리다 골프트립 (18명 참가)
2월	9일(목)	편집위원 운영위원 간담회 (16명 참가)
4월	1일(토)	신년교례회 - KCC Tenafly, NJ
	13일(목)	Hiking -Harriman Park (8명 참가)
	20일(목)	Golf Outing -Sunset Valley (32명 참가)
5월	18일(목)	동창회 춘계 골프대회-Split Rock Golf Club
	25일 (목)	Kaaterskill Fall 방문
6월	8일(목)	Golf Outing - Split Rock Golf Club
	15일(목)	Picnic - Rockland Lake State Park
7월	13일(목)	Golf Outing -Sunset Valley
8월	10일(목)	Golf Outing
	19일(토)	뉴욕지역동창회 Picnic
9월	14일(목)	Golf Outing- Pelham Golf Club,NY
10월	12일(목)	동창회 추계골프대회(Sunset Valley)
11월	2일(목)	Golf Outing-Rockleigh Golf Club
12월	2일(토)	뉴욕지역동창회 송년회 -Double Tree Hotel
	10일-16일	Myrtle Beach Golf Trip
3월	23일(토)	신년교례회

Zelle 사용안내: 골든클럽에 회비/후원금/참가비등을 Zelle 로 납부하실 분은 201-965-7759 (Jay Kim)에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때 message란에 영문이름과 내용을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5월 생일을 축하합니다.

금영천 (약대72)

박기환 (문리58)

배상규 (약대61)

오순문 (사대68)

이강홍 (상대60)

이 회비 납부 양식을 Check (payable to **SNUAA**)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 SNUAA 44 Macintyre Lane, Allendale, NJ 07401
Zelle: 201-965-7759 Jay Kim